

그림책에 담긴 생명의 언어

☞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바버라 쿠니(1917~2000)는

산업화 전 미국인들의 삶을 서정적인 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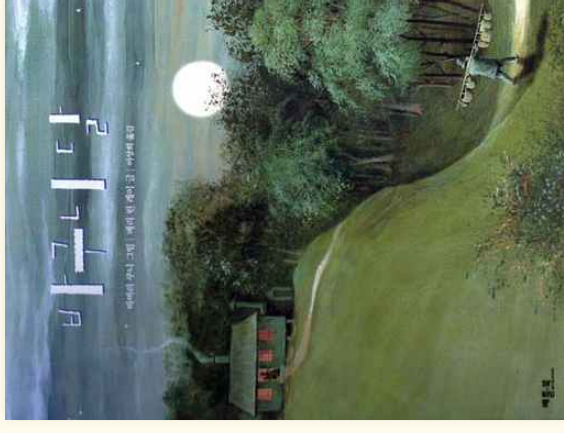
그림으로, 인간과 자연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조화로운 세계를 섬세한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 그의 마지막 작품인 <버구니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할 것 없이 모두 언어를 철저히 교육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 과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상경에서 사랑과 생명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보는 그림책을 통해 언어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혹은 작가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어린이를 위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희망과 사랑의 언어를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어두운 면, 부조리한 면을 그려낼 때에도 인간과 창조 세계에 대한 따뜻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아동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때 사실까요? 그림책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을 얻고 인격 화됩니다. 토끼, 곰, 생쥐, 호랑이, 오리, 물고기, 나무, 꽃과 채소, 벌레가 이름을 얻고 말하고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무생물조차도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달과 별, 바위와 언덕, 바다, 강물, 계절과 같은 창조 세계뿐 아니라 집, 자동차, 인형, 책과 같은 인공물로 살아서 움직이며 인간과 친구가 됩니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어떤 것도 전형화되거나 일반화되거나 대상화되지 않습니다. 인격화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이야기에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바버라 쿠니(1917~2000)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입니다. 산업화되기 전 미국인들의 삶을 서정적인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그의 마지막 작품인 <버구니탑>(1999)을 소개하겠습니다.

<버구니탑>에는 '나라는 소년이 화자로 등장하여 오래 전 미국 동부의 한 산골 마을에서 버구니를 짜며 살아 가던 그의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둥근 보름달을 버구니달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때 소년의 아버지가 버구니를 팔러 허드슨에 가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아버지에게 자신도 테러가 달라고 조르지만 아버지는 좀 더 크면 테러가겠다고 합니다. 소년이 아홉 살이 되자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허드슨으로 갑니다. 생전 처음 보는 부산한 도시 모습에 소년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수많은 거리와 상점을 지나면서 엄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을 앞두고 TV에서 언어의 힘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일본 학자가 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하여 들려주면 유각수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는데, 그 실험을 포도주와 밥에게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포도주는 좋은 맛을 낸 반면, 미워한다는 말을 들은 포도주는 맛이 텅텅, 사랑한다는 말을 한 달간 들은 밤은 희고 향긋한 누룩 곰팡이를 피운 반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밤은 시키렇게 냄새나는 곰팡이를 피웠습니다. 같은 실험을 콩나물, 채소, 그리고 닭, 소에게도 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식물은 물론 동물의 성장을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언어의 힘은 이토록 큰데 정작 우리는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에 더 익숙해 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과 대중매체에서는 매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말들이 넘쳐납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족들도 거리낌 전혀 없이 경박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유진 페티스는 그의 책 <부활을 살라>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혼란은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p.438). 창세기 1~3장은 창조에 사용된 언어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끈 언어를 보여줍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6일간 말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세계를 다스리라는 첫 과제도 말씀으로 주어졌고 아담도 동물의 이를 짓기(창 2:19-20)를 통해 창조의 사명을 지켰었습니다. 그러나 곧 언어는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배과 하와와 아담의 언어는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공범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피하고 핑계대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른이나 어린

마한테 허드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꿈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들을 놀립니다. "어이, 신평짜 촌뜨기들! 저 촌뜨기들은 버구니밖에 몰라!"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던 겁니다. 허드슨 사람들의 놀림으로 상처를 받은 소년은 집에 돌아온 후 우울해 하고 그 원인을 묻는 엄마에게 그 사건을 털어놓고 엄마는 "나무들은 우리 마음을 알거야. 허드슨 사람들이 뭐라고 하긴 신경 쓸 것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울분을 삭히지 못한 소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창고에 들어가 쌓아놓은 버구니를 걷어차지만 아버지가 만든 버구니는 튼튼해서 전혀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 때 나타난 조아지씨는 그 모습을 못 본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람의 말을 배워서 음악으로 만들어 노래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바람의 말을 듣고 시를 쓰며 자신들은 바람의 말로 버구니 짜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바람은 믿음만한 존재가 누군지 안다" 라고요. 그래서야 소년은 바람이 자신도 선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숲으로 갔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였지요.

청고로 돌아와서도 귀를 기울여 봤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난 나무 꼭대기를 집어 들고 바구니를 짰기 시작했지요.

위로 올리고, 밑으로 넣고, 위로 올리고, 밑으로 넣고...

그때까지도 바람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을 때, 난룻볼도 잠잠해지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예요.

바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 밖으로 나와 봐!"

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위로 아래로, 한밤중의 짙은 나뭇가지 그림자를 쬐으면서

바람이 바구니를 짠는 곳으로 갔지요.

절반쯤 짜여진 희미한 달빛 속에서 모든 나뭇잎들이

나게 절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 나뭇가지들이 집을 스치는 소리에 깬습니다.

"나무들이 가지개를 쳐고 있구나."

하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무들이 자라면 바구니들도 늘어나지."

난 알았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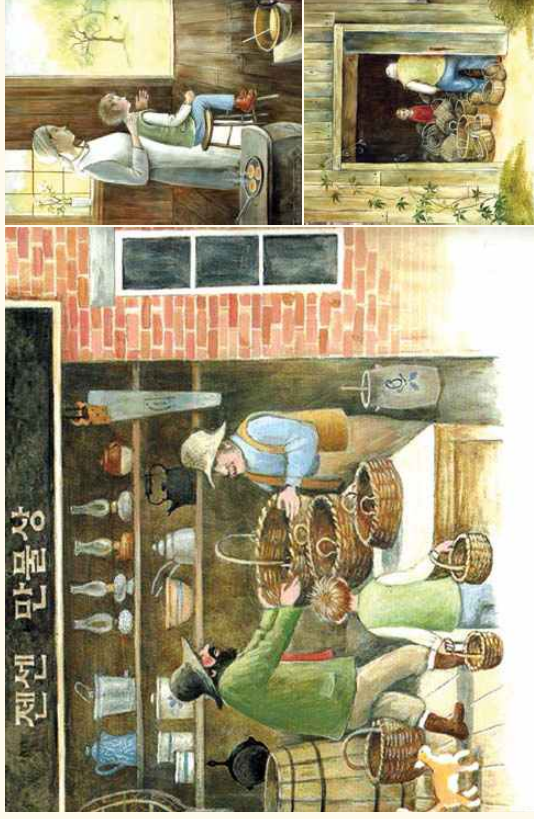
나무들이 키우는 것이 내가 만들게 될 바구니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람이 내 이름을 불렀던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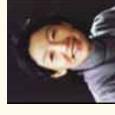
바바라 쿠니의 작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과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세계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인간을 지켜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이름을 불러주고 바구니 짠는 법을 가르칩니다. 나무는 그들에게 바구니를 짤 나뭇가지를 줍니다. 마침내 바람은 아버지와 조 아저씨처럼 소년에게도 말을 걸어 오고 소년은 나무에서 자신이 짤 바구니를 보게 됩니다.

간혹 바바라 쿠니의 작품을 즐기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 시각 언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려한 그림책이나 영상매체는 시 각적인 상상력을 제한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바라 쿠니의 작품은 그림이 화려하지도 않고 글(텍스트)의 비중이 커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채워가며 읽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단어가 묘사한 그대로 상상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즉, 그림이 표현하지 않은 부분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려보게 합니다. 이것을 문학적 용어로 '구체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인공 소년 이 허드슨 시네에서 본 상점의 모습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과 바구니를 갖바꾸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가 부푽한 걸 사러 푹맨 상점으로 갔어요. 통밀 가루, 허안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생강 건포도, 레몬과 돼지 기름, 강낭콩, 양파, 강통에 든 토마토... 상점 진열대 앞에서 난 그 화려한 빛깔에 눈이 등그래지고 말았습니다. 강통에 붙어 있는 상표들, 가지런히 줄 맞춰 놓은 과일과 채소들, 커다란 금빛 치즈, 분홍빛 음료수와 허얀 달걀들 말이예요.



언어가 만들어내는 리듬을 즐기며 진열대 위에 놓인 식품을 상상하면서 읽거나 듣지 않는다면 이 음식 목록은 재미없고 의미 없는 단어의 열거에 불과할 것입니다. 언어와 문학을 사랑하는 어른과 함께 그림책을 읽는 어린이의 마음속에서는 창조세계와 인물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들은 인격화되고 어린이 독자 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 아버지와 같이 바구니를 메고 허드슨으로 간 소년, 소년의 이름을 부르는 숲 속의 바람, 달빛 속에서 소년에게 절하는 나뭇잎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어린이들은 자기 집 앞에 서있는 작은 나무, 길가에 난 보잘것없는 관목과 풀 한 포기 들려주는 이야기에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형과학대학 아동형사법학과 교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동문학 보기」,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시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책의 이해 1, 2」, 「세계 그림책의 역사」, 「그림책의 그림읽기」, 「그림책과 예술교육」, 「즐거움 그림책 쓰기」가 있다.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기 과장을 운영하고 있다.